제10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대상 수상작

노동이 아닌, 상호작용으로서의 돌봄

이주은(한의예과 24학번)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내니'에 관한 글을 읽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맡아 돌보는 돌봄 노동자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필리핀 내니 '아이린'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들은 자유로운가? '돌봄'과 '노동'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해 고민해 보며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서울의 중상층 가정에서 바쁜 친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보모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린을 둘러싼 환경은 '따뜻하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로, 아이들의 친엄마는 그녀를 언니로 부르며 친근하게 대한다. 이들은 자주 행복한 식사자리를 가지며, 흔한 임금체불이나 폭력과 같은 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녀의 노동으로 인해 필리핀에 있는 아이린의 친자식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모나 할머니 등 여성 친족의 돌봄을 받아 성장한다. 언뜻 본다면 그녀는 외국에 자유로이 진출하여 직업을 얻고,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일하는 '자유로운 여성'이다. 종종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만, 이는 필리핀 사회의 '돌봄 순환'으로 인해 해소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그녀가 부여받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양육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역할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 친척들이 '돌봄'을 대행하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의 재생산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렇듯 견고한 문화적 틀로 인해, 비록 그녀에게 가시적인 폭력과 억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그녀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는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 자유의 억압, 즉 물리적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금체불 및 불공정 계약은 흔한 일이며,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성적 학대, 숙소통금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아이린의 경우 이처럼 명확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니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수많은 이주 돌봄 노동자가 그들을 옭아매는 억압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돌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돌봄을 경험하면서, 또는 미래에 어떤 돌봄을 행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해 보며, 필자가 내린 결론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요, 일종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돌봄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이는 상호 간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나 돌봄을 행하는, 혹은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호 성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돌봄을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몸으로 일한다는 뜻의 '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돌봄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남을 위해 애를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따라서 돈을 주고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봄 노동자들을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가를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돌봄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며,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객체가 되는 순환 작용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봄을 일방적인 서비스로 여기며,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봄에 대한 모두의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